

국내 주식 투자전략

G2의 경기회복 조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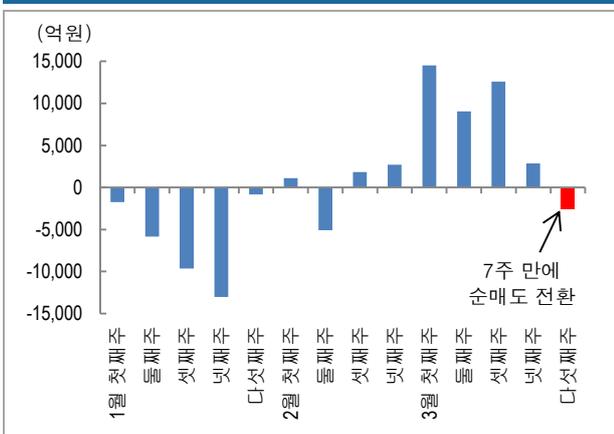


KOSPI,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 마감

국내 증시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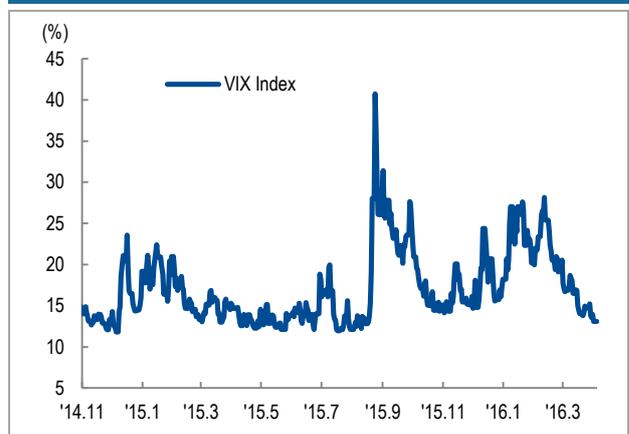
- 조정양상을 보이던 KOSPI가 3거래일 만에 소폭 상승하였다. 그러나 1) 2,000선의 밸류에이션 부담과 2) 주식형 펀드 환매압력 등이 여전히 걸림돌로 작용하면서 상승탄력은 둔화되는 양상이다.
- 게다가 지수 상승을 견인하던 외국인 투자자들마저 순매도로 돌아서며 2월 중순부터 이어진 순매수 기조에 변화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은 지난 3월에만 3.4조원 이상의 순매수를 기록하며 KOSPI의 상승을 주도하였다. 하지만, 지난주 후반 이틀 동안에만 4,000억원 이상의 순매도를 보이며 7주 만에 매도세로 돌아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 그러나 글로벌 유동성 확대기조에 힘입은 Risk-on심리 속에 위험자산에 대한 우호적인 투자환경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재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주요 리스크 지표들이 안정적인 흐름을 지속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글로벌 경기가 2/4분기 이후에는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국내 증시는 여전히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외국인 투자자 주간단위 순매매 추이



자료: DataGuide,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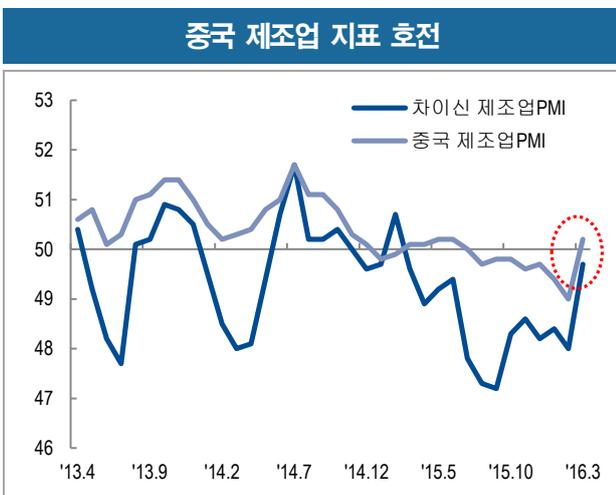
VIX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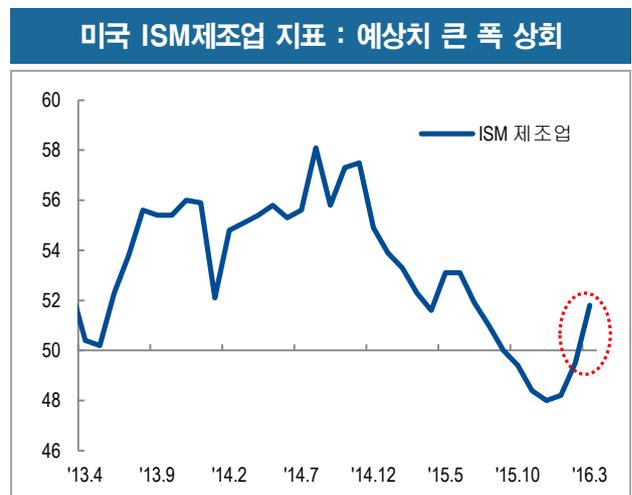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 G2의 제조업 지표 개선세 긍정적

- 이런 가운데 최근 발표된 G2의 제조업 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임에 따라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특히, 최근 주춤해지고 있는 외국인들의 매수기조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먼저, 최근 중국의 제조업 PMI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3월 중국 제조업 PMI가 50.2로 전월에 비해 1.2%p 상승하며, 8개월 만에 경기 판단의 기준점인 50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제조업 PMI를 구성하는 5개 분류지수 가운데 생산지수 및 신규수주 지수가 모두 50을 넘어서며, 중국 제조업 경기가 바닥을 통과할 조짐을 보여주었다.
- 여기에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ISM제조업 지수 역시 시장의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호조세를 기록하였다. 3월 ISM제조업 지수는 51.8을 기록해 전월(49.5) 및 시장 예상치(51.0)를 크게 상회함은 물론 6개월 만에 경기 확장국면으로 재진입 하였다. 국제유가 반등과 기준금리 인상 지연에 따른 달러화 약세가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 이처럼 G2(미국, 중국)의 제조업 지표 개선이 가시화되면서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대감 확대와 더불어 투자심리 개선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 따라서, 최근 KOSPI가 2,000선 회복 이후 단기적으로 숨고르기 국면을 이어가고 있지만, 수출 및 경기민감주의 반등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시장대응이 여전히 바람직해 보인다.
- 그리고 실적시즌 진입과 맞물려 지난 4일자 WM Weekly 국내 주식 투자전략 ‘3월 수출호조 업종에 관심’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3월에 수출이 크게 증가한 화장품, 무선통신기기, 철강제품, OLED 관련 업종에 관심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



자료: Bloomberg, NH투자증권 WM리서치부